

From : Kimbyung
Date : August 13, 2010
Subject : FW : 유대 Midrash 이야기

유대 미드라시(midrash)에 이런 이야기가
있습니다.



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의
우두머리 보석 세공인을 불러
명령을 내렸습니다.



"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!
거기에 내가 매우큰 승리를 거두어
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
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.
그리고 동시에 그 글귀가
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
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느니라."



명을 받은 보석 세공인은
명령대로 곧 매우 아름다운
반지 하나를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.
그러나 마땅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
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.



Y 이미지박스 | 출처 : <http://kr.image.yahoo.com/usuk2801>

보석세공인은 몇일을 고민을 하다가
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.
그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.



Y 이미지박스 | 출처 : <http://kr.image.yahoo.com/usuk2801>

"왕의 황홀한 기쁨을 절제해 주고
동시에 그가 낙담했을 때!
북돋워 드리기 위해서는
도대체 . . .
어떤 말을 써 넣어야 할까요?"



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.
이런 말을 써 넣으세요!



"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..."

"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것을 보면
곧 자만심이가라앉게 될 것이고,
그가 낙심중에 그것을보게 되면
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."



이처럼 모든 것은 다 순간이요,
곧 지나가 버리는 것임을 알 때,
우리는 성공이나 승리의 순간에도 지나치게
흥분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,
실패나 패배의 순간에도
지나치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

지나친 행복이나 슬픔에 빠진 순간에
"이것 역시 지나가 버립니다..."
라는 말을 생각한다면
우리는 쉽게 마음의
안정을 되찾을 수 있고
무력감을 훌훌 털고
추스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!...